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약본(새물결플러스 2015, 존 볼트 편)

바빙크 · 4장 계시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단권 축약본(존 볼트 편, 새물결플러스 2015), 1부 교의신학 서론 4장 '계시', 129–172쪽 (본문 쪽 표시 기준), 단락 [82]–[105]

🧭 흐름 한눈에

바빙크는 “모든 종교는 계시 위에 선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려 주시는 일이다. 이어서 근대의 계시관들을 하나씩 살핀다. 계시를 이성으로 줄인 이신론, 도덕이나 생명 체험으로 바꾼 칸트와 슐라이어마허, 인간 의식으로 녹여 버린 범신론이 그 대상이다. 그는 계시에 대한 바른 개념은 계시 자체에서만 나온다고 선언한다. 다음으로 성경을 따라 두 계시를 정리한다. 창조와 섭리를 통한 일반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에는 모자란다. 신현·예언·기적을 통한 특별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 뒤 로마 교회의 자연-은혜 이원론과 자연주의를 함께 물리치고, “은혜는 자연과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운다”는 유신론적 세계관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다룬다. 계시가 곧 성경과 같다는 생각도, 계시와 성경을 떼어 놓는 생각도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는 오직 성경의 형태로만 있으며 성경은 지금도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 1. 종교는 계시 위에 선다 (계시 개념 [82])

바빙크는 먼저 종교학의 사실 하나를 짚는다. 인도의 베다, 자라투스트라의 소명, 무함마드의 코란처럼 모든 종교는 '신이 자신을 드러냈다'는 믿음, 곧 계시 신앙을 갖고 있다. 종교가 학문·예술·도덕과 다른 점은 사람을 세상이나 이웃이 아니라

놓아도 종교적 충동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평범한 연구로는 알 수 없는 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숨어 계신 곳에서 스스로 나오셔서 자신을 알려 주셔야 한다. 또 모든 종교는 결국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하나님, 인간, 구원에 대한 답은 해부학이나 심리학 같은 과학의 범위를 넘는다. 그러므로 이 답은 계시로만 얻을 수 있다. 바빙크는 “계시와 종교는 함께 서고 함께 넘어진다”고 정리한다.

1. 모든 종교는 계시 신앙을 갖는다
2. 종교는 초자연적 능력과의 관계다
3.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셔야만 알려진다
4. 모든 종교의 질문은 '구원'이다
5. 구원의 답은 과학 너머, 계시에만 있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종교학 자료(티엘레 등)로 논증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

📜 2. 근대의 계시관들: 이성·도덕·생명·범신론 ([83])

바빙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만 알려진다면 우리의 앎은 신앙과 묶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반대로 철학의 틀로 계시를 재단하면 추상적인 지성주의로 흐른다. 대표적인 예가 이신론이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뒤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성을 계시의 재판관으로 세웠다. 그 결과 기독교 핵심 진리를 이성만으로 알 수 있다고 하여 성경의 특별계시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이 냉랭함에 대한 반발로 여러 견해가 나왔다. 낭만주의(하만, 헤르더, 야코비)는 계시를 천재의 영감으로 보았다. 칸트와 리츨은 도덕적 완전성으로 보았다. 피히테는 예수를 인류에게 도덕적 운명을 일깨우는 '비상수단'으로 보았다. 슐라이어마허는 계시의 중심을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두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한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이다. 이로써 계시를 '교리'가 아닌 '생명의 전달'로 보는 길이 열렸고, 중재신학과 리츨도 이를 이어받았다.

바빙크는 이 새 계시관의 네 가지 특징을 공정하게 정리한다. ① 특별계시를 마음·양심 및 일반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② 말과 행위의 역사적 과정이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른다고 보았다. ③ 계시의 목적을 가르침보다 구원과 도덕적 갱신에 두었다. ④ 역사 속의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구분했다. 그는 이 차이를 바르게 다루기만 하면 이 특징들이 계시 이해를 풍성하게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셸링과 헤겔의 철학은 한 걸음 더 나간다. 계시를 '절대자가 인간 의식 속에서 자기를 깨닫는 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 진화론적 범신론(하나님과 세계를 사실상 하나로 보는 입장)에 이르면 초자연적 계시는 사라진다. 성경도 바빌론 문서와 같은 층위로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1. 이신론: 이성이 계시를 재판했다
2. 칸트·리츨: 계시를 도덕으로 바꿨다
3. 슐라이어마허: 교리 아닌 생명 전달
4. 새 계시관의 네 특징은 일부 인정
5. 범신론에 이르면 초자연 계시는 사라진다

> **고린도전서 15:19**
> 계시가 인간의 상상물이라면 신앙은 헛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임을 보인다
>
>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 3. 모든 종교가 계시를 주장한다면? ([84])

자연주의, 곧 자연만이 전부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계시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없다면 포이어바흐의 말처럼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일 뿐이다. 그런데도 자연주의자들은 '계시'라는 말을 계속 쓴다. 바빙크는 이들이 그 말을 쓸 권리를 이미 잃었다고 지적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다는 계시의 가능성은 창조와 섭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세계관을 전제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남는 문제는 여러 종교가 저마다 계시를 주장할 때 무엇으로 판별하느냐는 것이다. 바빙크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학문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계시에 대한 바른 개념은 계시 자체에서만 나온다. “착하게만 살면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는 무관심주의는 어떤 실제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겉보기 순환논리'가 상대주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진리·선·미를 상대적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아도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자기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무슬림과 불교도도 자기 계시에서 출발한다. 그러니 각자 자기 생각에 온전한 확신을 갖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해할 지혜도 주신다고 확신하며 증언한다. 다만 그 증언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확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계시하시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뿐이다.

1. 자연주의에선 계시가 불가능하다
2. 계시는 유신론적 세계관을 전제한다
3. 중립적 종교 연구는 없다
4. 계시에 답하는 것은 계시뿐이다
5. 순환처럼 보여도 상대주의는 아니다

> **(직접 인용 없음)**
> 철학적 논증 단락. 이어지는 절부터 “성경이 계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듣겠다고 예고한다

📜 4.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구분의 역사 (일반계시 [85])

초기 교회는 성경을 따라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를 구분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이 타고난 '이성의 씨앗'에서 얻는 가르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로만 오는 영적 지식과 구분했다. 이 구분으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겹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나 중세로 가면서 두 계시는 절대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초자연적 계시는 '죄 없는 사람과 천사의 지성도 넘는 다른 차원의 지식'이 되었다. 여기에 공로 개념이 섞이면서 죄가 하나님 지식에 끼친 영향이 흐려졌다.

종교개혁은 이 구분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뜻을 바꿨다. '초자연적'이란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이라는 뜻이 되었다. 개혁파는 자연신학(자연과 이성으로 얻는 하나님 지식)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의 교리 안에 넣었다. 죄로 어두워진 눈은 자연계시조차 바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의 말대로 성경이라는 '안경'과 성령이 밝혀 주시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 반면 재세례파 극단은 자연 질서를 거부했고, 소키누스주의는 자연신학을 버렸으며, 루터도 이원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과도한 초자연주의는 오히려 이성주의로 돌아섰다. 자연신학이 커진 끝에 이신론이 나와 계시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역사비평은 초자연적 계시의 기반을 허물었다.

1. 초기 교회: 이성의 씨앗 vs 그리스도 지식
2. 중세: 두 계시가 절대 대립으로 굳었다
3. 개혁: '초자연'은 죄를 넘는다는 뜻
4. 성경은 자연을 읽는 안경이다
5. 극단의 초자연주의는 이성주의로 귀결

> **(직접 인용 없음)**
> 교리사 단락. 유스티누스, 칼뱅(『기독교 강요』 1권 1–5장) 등 신학자를 근거로 든다

📜 5. 모든 계시는 초자연적이고, 모든 계시는 매개적이다 ([86])

바빙크의 첫 번째 결정적 주장은 성경이 '자연적/초자연적' 계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와 성경 모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창조계시도 성경 못지않게 초자연적이다. 창조는 첫 계시이자 뒤따르는 모든 계시의 기초다. 하나님은 타락 이전부터 이미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먹지 말라”는 명령은 자연에서 추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계시냐, 자연주의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본래 '초자연주의자'다.

두 번째 주장은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직접적'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계시는 매개적이다. 하나님은 늘 신현, 말씀, 행위, 꿈 같은 수단을 거쳐 자신을

하나님이 몸을 낮추시는 은혜이고, 사람의 방식에 맞춘 '하나님의 인간화'다.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은 물러가지 않으셨다. 창조 안에서 능력과 신성을, 복과 심판 안에서 선하심과 진노를 계속 보이신다. 민족의 역사와 개인의 양심에도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바빙크는 '자연/초자연'보다 '일반/특별' 계시라는 구분이 더 낫다고 결론짓는다.

1. 성경엔 자연/초자연 구분이 없다
2. 창조가 첫 계시이자 모든 계시의 기초
3. 타락 전에도 '말씀 계시'가 있었다
4. 모든 계시는 수단을 거친다(매개적)
5. 계시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은혜다

> **요한복음 5:17**
>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 기원에서 초자연적이다
>
>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 **창세기 2:16**
> 타락 전의 행위언약 명령(이어지는 2:17의 “먹지 말라”)은 자연에서 추론할 수 없는 말씀 계시다
>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요한일서 3:2**
> 장차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영광 중에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남는다(뒤에서 다룰 주제로 예고)
>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도행전 14:16-17

이방인에게도 비와 결실로 자기를 증언하셨다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심판을 통한 계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신명기 32:8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는 역사 속 계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사도행전 17:26

인류의 연대와 거주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로마서 2:14-15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을 통한 계시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창세기 9:12-17

무지개처럼 창조세계의 표징에 말씀이 함께 오는 계시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 6. 일반계시는 모자라지만, 이방 세계의 토대다 ([87]-[88])

일반계시가 구원에 불충분하다는 데에는 아우구스티누스부터 토마스, 로마 교회와 개신교까지 이견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이 목적지는 알아도 길은 모르고, 교만 때문에 오히려 길을 잃게 한다고 보았다. 이유는 분명하다. 일반계시는 죄, 하나님의 진노, 은혜를 알려 주지 못한다. 거기서 얻는 하나님 지식은 불확실하고, 오류와 섞여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닿을 수 없다. 게다가 이신론이 말한 '순수한 자연종교'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이신론의 신을 위한 신전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일반계시는 모든 이방 종교의 토대라는 의미가 크다. 성경은 이방 종교를 우상숭배, 헛것, 악한 영의 활동, 흑암과 무지로 묘사한다. 종교가 동물 상태에서 원시종교를 거쳐 고등종교로 '진화'했다는 설명은 종교가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친다. 바빙크는 열매를 보고 도토리를 알듯 종교는 가장 무르익은 모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개념이 처음부터 모든 종교의 뿌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이방 종교에도 진리의 요소가 있다고

역사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지지할 수 없다. 성경은 이방인 가운데도 로고스의 조명과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고 말한다. 개혁파는 이것을 일반은총으로 설명한다. 일반은총이란 구원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한 은혜다. 이 교리로 개혁파는 “자연신학이면 충분하다”는 펠라기우스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이방 세계에 있는 참·선·미를 인정했다. 칼뱅의 '종교의 씨'와 '신성에 대한 감각'이 이것이다. 이방 종교에도 희생제사, 사제, 기도 같은 종교의 요소가 일그러진 모습으로 있다. 기독교는 참 종교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다.

1. 일반계시는 죄·진노·은혜를 모른다
2. 순수 자연종교는 존재한 적 없다
3. 이방 종교의 뿌리도 일반계시다
4. 이방 종교에도 진리의 조각이 있다
5. 일반은총: 인정하되 구원은 아니다

> **이사야 41:29**
> 이방의 우상은 헛되고 바람 같다
>
>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 **사도행전 14:15**
>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숭배의 실체를 보인다
>
>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고린도전서 10:20**
> 이방 제사 배후의 악한 영적 세력(원문 “10:20 이하”)
>
>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도행전 17:30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를 간과하셨다. 이방의 무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로마서 1:24

그 무지가 죄와 불의로 이어진다(원문 “1:24 이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9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이방인 가운데 로고스의 조명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로마서 2:14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사도행전 17:22-30

아덴 설교. 이방 종교 안의 갈망과 하나님의 증언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

📜 7. 일반계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것 ([89])

일반계시는 이방 세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하다. 성경 스스로 창조 속의 하나님 영광을 노래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의 영에게 돌리고, 예술적 재능과 지도력도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으로 본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쓴 그리스도인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로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자취를 본다. 그래서 세상을 낯선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낀다. 또 일반계시는 비그리스도인과 만나는 공통 기반이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종교적 존재다. 하나님은 계신가,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같은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계시가 이 갈망을 살려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갈망을 채운다. 일반계시는 인류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까지 인류를 보존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코 세상을 등지는 종교가 아니다. 창조와 구속은 하나의 찬양이 되고,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1. 성경이 일반계시를 높이 평가한다
2. 예술·지도력도 성령의 선물이다
3. 성경 안경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다
4. 일반계시는 전도의 접촉점이다
5. 은혜는 자연을 회복한다

시편 19편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시편 8편, 29편도 함께 인용)

시편 19장 [1]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언어도 없고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

창세기 2:7

생기를 불어넣으심.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욥기 33: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시편 104:29-30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29]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31:2-5

브살렐의 예술적 재능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결과다(출애굽기 35:30-35도 함께 인용)

[2]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민수기 27:18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영이 머문 결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 **사사기 3:10**
> 사사의 리더십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
>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 8. 특별계시: 형식은 닮아도 내용이 다르다 (특별계시 [90])

기독교도 일반계시만으로는 존속할 수 없다. 모든 종교에는 세 가지 기본 갈망이 있다. 가까이 계신 신, 뜻을 알려 주는 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신이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나 나타남, 예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다. 성경의 종교도 희생제사, 성전, 제사장 같은 형식을 다른 종교와 공유한다. 그러나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바빙크는 성경의 계시 용어를 정리한다. 히브리어로는 '갈라'(드러내다), '라아'(보이다), '야다'(알리다)가 있다. 헬라어로는 '에피파네이아'(나타남. 초림과 재림 모두에 쓰인다), '그노리제인'(알리다), '랄레인'(말하다) 등이 있다. 특히 '아포칼륍테인'은 덮개를 벗겨 드러내는 것이고, '파네룬'은 감춰진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이 둘이 사물 자체를 드러내는 쪽이라면, '그노리제인'과 '델룬'은 드러난 것을 우리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쪽이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신현, 점술과 주술, 대언자를 통해 신의 뜻을 찾았다. 바빙크는 강신술이나 주술 같은 현상에 초감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함께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기독교에도 희생제사, 제사장, 성전이 있다. 다만 이교에서 서툰 모방이던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림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체가 되었다.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신앙이다.

1. 종교의 세 갈망: 가까움·소통·도움
2. 형식은 같아도 내용이 다르다
3. 아포칼륍시스: 덮개를 벗기는 계시

5. 차이는 메시아 신앙에 있다

> **창세기 35:7**
> '갈라'(나타나다)의 용례. 벧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심
>
>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 **민수기 12:6**
> '야다'(알리다)의 용례. 환상과 꿈으로 자신을 알리심
>
>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 **디모데후서 1:10**
> '에피파네이아'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예
>
>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 **디도서 2:13**
> '에피파네이아'가 재림을 가리키는 예
>
>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 **히브리서 1:1**
> '랄레인'(말하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
>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출애굽기 7:8-12**
> 애굽 요술사의 이적. 성경은 이런 현상의 실재를 인정한다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들의 표적과 기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명기 18:10-11

점술과 신접을 절대 금하심

[10]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에베소서 5:2

기독교에도 '희생제사'가 있다. 그리스도의 자기 드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기독교의 '제사장', 그리스도

[1]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

> **고린도전서 3:16**
> 기독교의 '성전', 성도의 공동체
>
>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9. 계시의 세 방식: 신현·예언·기적 ([91]–[93])

바빙크는 세 가지 인간의 갈망에 성경이 세 방식으로 답한다고 본다.

신현 —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일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답이다. 신현은 하나님에게 몸이 있다는 뜻도, 하나님 본질이 흘러나온다는 뜻도 아니다. 바람과 불, 구름 같은 비인격적인 모습이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특히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이름, 능력, 구원, 경배에서 하나님과 하나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 그러나 구약의 신현은 불완전하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 신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고, 성령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다.

예언, 곧 '영감' —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전하시는 일이다.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답이다. 여기서 '영감'은 성령이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게 하시는 일을 말한다. 방식은 들리는 음성, 꿈, 환상, 우림과 둠밈 같은 제비뽑기다. 바빙크가 강조하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리스의 점술가와 달리 성경의 예언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황홀경 중에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묻고 대답했다. 이는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는 영감, 곧 다음 장에서 다룰 '유기적 영감'의

쓰일 정도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계시가 바깥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이다. 구약에서 성령은 예언자에게 갑자기, 그리고 일시적으로 임했다. 신약은 구약 예언자들이 성령으로 말했다고 확증한다. 마지막이자 최고의 예언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그분 위에 잠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한량없이 거하신다. 그리스도는 그 영을 계시와 조명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고, 모든 신자에게 기름 부으셨다. 특별한 은사로서의 예언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친다.

기적 — 행위를 통한 계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이고 그분의 행동은 곧 말씀이다. 창조와 섭리도 계속되는 기적이다. 그러나 평범한 자연 질서와 비상한 신적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기적은 일종의 새 '창조'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는 '표적'이다. 그런데 구약의 기적은 창조세계를 영구적으로 새롭게 하지는 못했다. 기억이 흐려지자 삶은 평소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다. 그날 새 언약, 낙원이 된 자연,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육신은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님의 기적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증거다. 그분 안에서 기적은 역사가 된다.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기적, 곧 중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장차 새 시대에는 '기적'이 '자연'이 된다.

1. 세 갈망에 세 방식으로 답하신다
2.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구별되나 하나
3. 예언자는 황홀경에도 의식이 있었다
4. 계시의 대부분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었다
5. 기적의 정점은 성육신, 지금은 중생

> **창세기 12:7**
>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신현.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 **출애굽기 24:17**
> 하나님 영광이 소멸하는 불로 나타남

열왕기상 8:10-11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

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창세기 16:13

하갈에게 나타난 사자를 '하나님'으로 부름. 사자와 하나님이 하나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출애굽기 23:20-23

사자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

20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사야 63:8-9

'자기 앞의 사자'가 구원하심. 사자의 구원 사역

8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열왕기상 8: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 신현의 절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23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와 함께 거하심. 성령을 통한 내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고린도전서 3:16

공동체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 21:3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 거하심의 완성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민수기 12:6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심. 예언의 방식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사야 6장

예언자가 보고 듣고 대답함. 의식을 잃지 않은 계시 수납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

아모스 1:1

'이상으로 받은 말씀'. '환상'이 예언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임

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에스겔 1:3

여호와의 손(영)이 예언자 위에 임함. 계시는 바깥에서 온다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전서 1:11

예언자 속의 그리스도의 영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요한복음 3:34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최종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6:13

진리의 영이 제자들을 인도하심. 계시와 조명의 영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일서 2:20

모든 신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3:8

예언의 은사는 그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시편 33: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출애굽기 34:10

온 땅에 행하지 않은 이적. 기적은 새 '창조'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요한복음 2:11

가나의 표적이 영광을 나타냄. 기적은 표적이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레미야 31:31

여호와의 날에 올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사야 65:17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태복음 11:3-5

예수님의 기적은 메시아 시대의 증거다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에베소서 2:1-10

죽은 자를 살리심. 지금의 영적 기적

[1]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

📜 10. 특별계시의 내용과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94]-[97])

하나님의 계시는 조각조각 주어지지 않는다. 창조에서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다. 바깥의 계시에는 사람의 지성과 양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은 구원과 상관없는 방식으로도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신다. 칼뱅은 이것을 성령의 구원 사역과 구분하여 '공동의 유익을 위한 탁월한 선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계시를 일부만 보고, 그마저 고의로 억누른다. 그래서 바르게 보게 하는 은혜의 조명이 꼭 필요하다.

모든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타락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구원계시, 곧 특별계시가 필요해졌다. 일반계시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두드러진다. 특별계시에서는 성부·성자·성령의 구별이 분명해진다.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른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로고스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와의 사자이며, 예언의 내용이시다. 바빙크는 계시를 한 측면으로만 줄이는 것을 경계한다. 계시는 지리만이 아니라 의와 생명도 준다. 사건과 그 사건을 설명하는

그러면 죄가 지성을 얼마나 깊이 속였는지 잊게 된다. 그래서 계시는 생명의 전달인 동시에 진리의 선언이다. 계시는 교리를 낳는다. 앞에서 본 슐라이어마허식 '생명만의 계시'에 대한 답이 여기 있다.

특별계시의 최종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면서 그분의 말씀도 완성되었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과 기적의 은사가 사도 시대 뒤에도 이어지느냐는 질문은 '부차적'이다. 바빙크는 교부들의 증언이 풍성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은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은사가 남아 있다 해도 성경에 기록된 특별계시의 내용은 더 풍성해지지 않는다. 반대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은사가 그쳤다고 봐도 특별계시가 빈약해지지 않는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뿐이다. 다만 사람이 계시를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에 더하여 성령의 내적 사역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할 의무를 지운다.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무거운 심판을 받는다. 특별계시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통해 말씀하신다. 씨 뿌리는 때는 추수 때에야 끝난다.

1. 계시는 창조에서 완성까지 하나의 이야기
2. 특별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계시
3. 계시는 생명이자 진리, 교리를 낳는다
4. 그리스도에서 완성, 새 계시는 없다
5. 은사 지속 문제는 '부차적'이다

> **로마서 1:18-23**
> 타락한 인간은 계시를 억누른다. 그래서 은혜의 조명이 필요하다
>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되어 [23]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시편 19:1

자연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증언하는 데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18-20

만물에 보인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핑계할 수 없다

[18]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1:3

만물이 로고스로 지어짐.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심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출애굽기 23:20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자로 볼 수 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요한복음 5:39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함. 그리스도는 예언의 내용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9:10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14

때가 차매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1-4

아들 안에서 하신 말씀으로 계시가 완성되었다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요한복음 16:14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리신다. 새 내용을 더하지 않으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심. 계시 수납에 성령의 내적 사역이 필요하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갈라디아서 1:15-16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심. 같은 내적 사역

>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베드로후서 1:4

계시의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제다

>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 11. 자연과 은혜: 로마 교회의 이원론과 종교개혁 ([98]-[99])

교회는 계시를 두 방향으로 잘못 이해했다. 하나는 초자연주의, 다른 하나는 자연주의다. 바빙크는 먼저 초자연주의를 다룬다. '자연/초자연'이라는 구분은 성경에 낯설다. 자연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부들이 이 말을 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은혜와 중생은 평범한 자연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초자연적'은 '유신론적'과 같은 말이다. 기적, 신현, 예언, 조명은 모두 초자연적이다. 그러나 모든 기적이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모든 초자연적 일이 기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로마 교회의 구도다. 로마 교회는 사람의 목적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창조된 상태의 완전함이라는 '자연적 목적'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뵙는 것과 신성화라는 더 높은 '초자연적 목적'이다. 이 생각은 할레시우스, 보나벤투라,

결합하자 위계적 세계관이 생겼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이라는 것이다. 이 생각은 한편으로는 세상이 교회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경멸하는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로 이어졌다. 편집자 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교회가 교회의 정치적 통치 개념을 거부한다고 덧붙인다. 이렇게 되면 특별계시는 세상 '위'를 떠도는 신비가 된다. 그리고 그 진실성은 기적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이 된다.

종교개혁은 이 '양의 대립'(자연 아래, 은혜 위)을 '질의 대립', 곧 윤리적 대립으로 바꿨다. 은혜가 맞서는 상대는 자연이 아니라 죄다. 성육신이 그 증거다. 그리스도는 참 인성을 입으셨고, 자기 부인을 하셨지만 몸을 학대하지 않으셨으며,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악에서 지켜 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문화, 사회, 정치까지 삶 전체를 새롭게 했다. “자연은 은혜를 천거하고, 은혜는 자연을 교정한다.”

1. '초자연'은 '유신론적'이라는 뜻일 때 옳다
2. 로마: 자연적 목적과 초자연적 목적 분리
3. 이원론은 교회/세상의 위계로 이어진다
4. 개혁: 은혜는 자연이 아니라 죄와 싸운다
5. 신앙은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

> **요한복음 3:16-17**
>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셨다. 복음은 창조세계와 싸우지 않는다
>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일서 3:8**
>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대립은 죄와의 대립이다
>
>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 세상에서 데려가지 말고 악에서 지켜 달라는 기도. 도피가 아니다
>
>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 12. 자연주의, 그리고 유신론적 세계관 ([100]-[101])

초자연주의가 자연을 깎아내린다면, 자연주의는 자연을 높이려고 계시를 희생시킨다. 레싱, 칸트, 볼테르 같은 이성주의자와 이신론자는 이성의 법정을 통과하는 것만 계시로 인정했다. 그들은 계시가 불필요하고, 알아볼 수도 없으며, 판별할 기준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왜 모든 종교가 계시를 믿는지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적응설, 풍유, 신화, 상징, 종교사학 같은 설명이 줄줄이 나왔다. 바빙크는 이 시도들이 성경을 자연과 역사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해하는 데 나름 기여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설명이 계속 바뀌고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패를 보여 준다. 성경은 자연주의적 설명을 거부하고 계시의 기원을 성령의 비상한 사역에 돌린다. 성경은 단순한 해석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실에 대한 해석이고, 하나의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느냐는 결국 세계관의 문제다. 결정적인 것은 역사비평이 아니라 자기비평이고,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다. 지적 장애물이 사소하다는 말이 아니라, 최종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짜 걸림돌은 그리스도다. 성경의 계시와 기독교 신앙은 함께 서고 함께 넘어진다.

이 유신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물질 하나로 설명하는 유물론, 정신 하나로 설명하는 범신론과 날카롭게 대립한다. 이런 입장들을 일원론이라 부른다. 유신론은 하나님과 세계를 구별하고, 물리적·심리적·윤리적 실재의 다양성을 각각 존중한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이고, 그 경이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만물은 각자의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스스로 존속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능이 매 순간 붙드시고 하나의 목적으로 이끄신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런 세계관에서 기적은 자연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연은 이신론의 말처럼 완성된 기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다. 아퀴나스의 말처럼 기적은 우주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개별 사물 사이의 흐름이 깨질 뿐이다. 기적은 자연의 힘과 법칙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 법칙을 가진 '다른 힘'이 나타나 자연의 힘이 잠시

1. 자연주의: 이성 통과한 것만 계시다
2. 대체 설명들은 서로 충돌하며 실패한다
3. 결정 요인은 역사비평 아닌 자기비평
4. 유신론: 하나님과 세계 구별, 다양성 존중
5. 기적은 자연 파괴가 아니라 구원 계획

> **베드로후서 1:21**
>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나왔다. 계시의 기원은 성령이다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고린도전서 2:11-12**
>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 자연주의적 설명을 거부하는 근거
>
>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5:17**
>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계시한다
>
>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 13. 기적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적, 언어, 역사 [102])

앞 절에서 기적과 자연의 조화를 말했지만, 바빙크는 둘을 섞지 않는다. 계시와 기적의 질서는 자연 질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영감 받은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 고조된 결과가 아니다. 감신술, 최면술, 텔레파시 같은 기이한 현상과 같은

이론이 성경의 기적을 쉽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방식이다. 편집자 주는 양자물리학으로 부활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예로 든다. 다른 하나는 과학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선언하는 데 끌려가는 방식이다. 신학자와 과학자는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또 기적 이야기에서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신화적 의미'를 갈라내고 의미만 남기려는 시도도 거부한다. 편집자 주는 불트만과 슈트라우스의 비신화화를 예로 든다. 기적은 계시만큼 필수적이다. 기적을 부인하면 성경 계시와 복음 전체를 의심하게 된다. 계시를 믿는 일은 결국 죄와 죽음이 정복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의 문제다.

1. 기적은 자연 능력의 고조가 아니다
2. 새 과학에 기대지도 끌려가지도 말라
3. 사실/의미 분리(비신화화) 거부
4. 기적 부인은 복음 전체를 흔든다
5. 계시 신앙은 구원 소망의 문제다

> **(직접 인용 없음)**
> 세계관 논증 단락. 성경 구절 대신 신학자와 편집자 주를 근거로 든다

📜 14. 계시는 글이 된다: 계시와 성경의 관계 ([103]–[104])

여기서부터가 성경론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종교에 경전이 있다. 계시가 말로 표현되고, 대대로 전해지다가, 글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며, 말한 것을 글로 남긴다. 기록된 말씀은 입으로 한 말이 형태를 입은 것으로, 계시를 오래 남고 널리 퍼지게 만든다. 언어가 민족을 만들듯 계시의 말씀은 새 백성, 곧 거룩한 나라를 만든다. 성경 계시는 역사이며 역사를 만든다. 동시에 영원한 생각을 담고 있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

바빙크는 기독교의 진리가 '성육신적'이라고 말한다. 그 진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에 기초한다는 뜻이다. 계시는 인류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려고 기록된 언어라는 [중의 형태]를 입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일종의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한다. 이 관계에서 피해야 할 오류가 둘 있다.

첫째 오류는 계시를 영감, 곧 성경 기록과 똑같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그 뒤에 있는 구속과 계시의 역사에서 떼어 내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계시는 기원과 효과에서 전승과 묶여 있다. 여기서 '전승'은 가장 넓은 의미의 대물림을 말한다. 인류는 서로 의존하는 유기적 전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앞 세대에게서 받으며, 재창조는 창조의 법칙을 따른다.

둘째 오류는 성경과 계시를 거의 떼어 놓는 것이다. “문자가 아니라 영”,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구호가 그 예다. 레싱은 루터가 교황에게서 해방시켰으니 이제 '종이 교황'에게서도 해방시켜 달라고 했다. 바빙크는 이 둘째 오류가 첫째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본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① 계시와 영감은 많은 경우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영감을 부인하면 계시의 많은 부분을 잃는다. ② 사실과 말씀이 기록보다 먼저 있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안다. 성경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앎도 무너진다. ③ 계시는 역사이므로 모든 역사처럼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④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 안에서 사귀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사귈 수 없다. ⑤ 영감은 성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고유한 사역이므로 그 자체가 계시 행위다. 따라서 성경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행위를 부인하는 일이다. 정통주의의 지성주의도, 재세례파의 신령주의도 성경을 하나님 교육의 마지막 행위로 존중하지 못했다. 성경은 계시의 마침표이자 면류관이다. 직접 주어진 계시를 기록 문서로 남기는 도구다.

1. 계시가 말이 되고 글이 되는 건 자연스럽다
2. 성경은 '종의 형태'를 입은 계시다
3. 오류①: 계시 = 성경 기록으로 동일시
4. 오류②: 성경과 계시 분리(더 위험)
5.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도 모른다

> **베드로전서 2:9-10**
> 계시의 말씀이 새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든다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요한복음 21:25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 계시와 기록을 동일시할 수 없다(오류① 반박)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디모데전서 6:7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앞 세대에게서 받는다(전승의 원리)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요한복음 17:20-21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닿는다(오류② 반박)

[20]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3

사도들과의 사귐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계시다."

📜 15. 계시는 완결되었고, 성경은 살아 있다 ([105])

번역문 첫 문장 “계시 전체는 재림 때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다”는 헷갈리기 쉽다. 바빙크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시의 역사는 두 시대로 나뉜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로, 이를 준비하는 구약을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그 구원을 신자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시대다.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한 '장막'을 찾으시는 과정이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으실 뿐 이미 완성된 계시에 새것을 더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보충되거나 늘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시대에는 새로운 객관적 계시가 없다.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그 계시의 '효과'다.

계시가 완결되었다고 해서 효과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에 거하시고, 중생·성화·영화라는 영적 기적을 계속 행하신다. 성령은 사람을 새로 나게 하실 뿐 아니라 조명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는 지성을 밝히는 교리인 동시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다. 바빙크는 이 둘 중 하나만 붙드는 지성주의와 신비주의를 함께 경계한다. 이 시대에 계시는 성경과 교회 안에서 함께 계속된다. 둘은 성령으로 떼어 놓을 수 없게 묶여 있다. 성경은 옛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영감은 성경의 '영속적인 속성'이다. 바빙크는 디모데후서 3:16에 대한 벵겔의 주석을 인용한다. 성경은 기록될 때만이 아니라 읽힐 때에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 역사 정보가 아니라 교훈과 위로와 소망이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 계시와 성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주님께 직접 배운다.

1. 객관적 계시는 그리스도에서 완결됐다
2. 성령은 새것을 더하지 않고 적용하신다
3. 계시는 교리이자 생명이다
4. 성경과 교회는 떼어 놓을 수 없다
5. 영감은 성경의 영속적 속성이다

> **요한복음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디모데후서 3:16

직접 인용은 아니지만 벵겔의 이 구절 주석을 통해 '하나님의 숨'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근거로 쓰인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15:4

기록된 말씀은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위한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 역사 정보가 아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교회의 빛이고, 교회는 성경의 생명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일반계시

창조와 섭리, 역사,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만 구원의 길은 알려 주지 않는다.

특별계시

영감(θεοπνευστια, 테오프뉴스티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 성령이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게 하신 일. 바빙크는 이것이 성경의 영속적 속성이라고 본다.

유기적
기계처럼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각 부분이 하나로 자라고 연결된 모습. 계시가 창조, 역사, 사람의 의식과 이어져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매개적 계시
하나님이 직접 본질을 보이지 않고 말씀, 현상, 사람 같은 수단을 거쳐 알리시는 계시. 바빙크는 모든 계시가 이렇다고 본다.

신현
하나님이 불, 구름, 천사, 여호와의 사자처럼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일.

일반은총
구원과 별개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선한 은혜. 학문·예술·도덕·종교심 속의 진리 조각이 여기서 나온다.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뒤 간섭하지 않으며 종교 진리는 이성으로 충분히 안다고 보는 18세기 사상.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finitum non est capax infiniti)
피조물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품을 수 없다는 원리. 그래서 계시는 늘 하나님이 몸을 낮추시는 은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청년의 삶으로 ⌄

- 모든 종교는 계시 위에 서고,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셔야만 알려진다.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계시 자체에서만 나온다.
- 모든 계시는 기원에서 초자연적이고, 방식에서는 수단을 거친다. 일반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방 종교의 토대가 되지만 구원에는 모자란다.
- 특별계시는 신현·예언·기적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다. 성령은 새 계시를 더하지 않고 그 계시를 적용하신다.
- 은혜는 자연이 아니라 죄와 싸운다. 그래서 신앙은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
- 우리에게 계시는 오직 성경의 형태로 있다. 영감은 성경의 영속적 속성이며, 성경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편 · 말씀하시는 하나님 ·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
- 성경론 3편 · 자연이 말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 성경론 4편 ·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 사건, 음성, 선지자와 사도
- 성경론 11편 · 권위는 어디서 오나 ·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 성경론 18편 · 성경으로 충분한가 · 충족성, 새 계시와 전통
- 성경론 22편 · 오직 성경, 그러나 혼자 읽지 않는다 · 성경주의와 전통주의 사이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